

- 주요 뉴스: 미국 3월 근원 PCE 가격지수 둔화세 지속 불구 5월 금리인상 전망 강화
 - 연준, SVB 사태 관련 감독 실패 인정 및 광범위한 은행 관련 규정 변화 필요성 강조
 - 퍼스트리퍼블릭 은행 FDIC 위탁체제 돌입 및 파산 우려 확대(Reuters)
 - 일본은행 초완화 정책 유지 및 향후 정책 검토 실시 예정 포워드 가이드스 큰 폭 수정
- 국제금융시장: 미국은 3월 PCE 물가지수 발표 등에 영향

주가 상승[+0.8%], 달러화 강세[+0.2%], 금리 하락[-10bp]

-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기업 실적 호조 등으로 상승
유로 Stoxx600지수는 '23.1분기 유로존 경제성장률 소폭 반등 등으로 0.6% 상승
- 환율: 달러화지수는 높은 3월 근원 물가 지속 등으로 강세
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.1%, 1.7% 하락
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금리인상 중단 기대, 은행권 불안 등으로 하락
독일은 3월 CPI 상승률 둔화 등으로 15bp 하락

※ 원/달러 1M NDF환율(1335.7원, +0.5원) 0.04% 상승, 한국 CDS 하락

		4/28일	4/27일	전일대비			4/28일	4/27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4,169.5	4,135.4	0.83%	국채 금리 10y	미국	3.42%	3.52%	-10bp
	유럽	466.64	464.03	0.56%		독일	2.31%	2.46%	-15bp
	중국	3,323.3	3,285.9	1.14%		영국	3.72%	3.79%	-7bp
	일본	28,856	28,458	1.40%	CDS 5y	한국	44bp	45bp	-1bp
	한국	2,501.5	2,495.8	0.23%		중국	71bp	72bp	-1bp
환율	달러지수	101.66	101.50	0.15%	위험 지표	EMBI+	419	419	0bp
	유로화	1.1019	1.1028	-0.08%		VIX	15.78	17.03	-7.34%
	엔화	136.30	133.97	-1.74%	원자재	WTI유	76.78	74.76	2.70%
	위안화	6.9184	6.9225	0.06%		구리	387.0	386.5	0.14%
	원화	1,337.7	1,338.0	0.02%		금	1,990.0	1,987.8	0.11%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미국 3월 근원 PCE 가격지수 둔화세 지속 불구 5월 금리인상 전망 강화

- 3월 근원 PCE 가격지수는 전년동월 대비 4.6% 상승하면서 2월 4.7%에서 소폭 둔화. 전월 대비로는 지난 2월과 같은 0.3% 유지. PCE 가격지수 상승률은 전월 대비 0.1%, 전년동월 대비 4.2%로, 2월 수치(각각 0.3%, 5.1%)를 하회
- 한편 3월 PCE 개인소득 증가율(전월 대비)은 2월과 같은 0.3%를 유지한 반면 개인 지출 증가율은 0.0%에 그치면서 2월 0.1%에서 둔화. '23.1분기 고용비용지수는 전분기 대비 1.2% 상승해 '22.4분기 1.1%보다 소폭 상승
- 시장에서는 헤드라인 인플레이 둔화 불구 고용지수비용 상승세 가속화와 더불어 근원 인플레이가 여전히 높은(sticky) 수준을 유지한 점에 주목하면서 연준의 5월 25bp 금리인상 전망이 강화. 연방기금 금리선물시장은 동 확률을 83.6%로 반영
- Bloomberg Economics는 근원 인플레이가 여전히 높아 연준의 부담이 지속되고 있으며, 5월 25bp 인상 후 금리동결이 기본 시나리오이지만 금리인상 지속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. Barclays도 임금 상승세가 둔화되지 않는 한 연준이 5월 이후에도 금리인상을 지속할 수 있다고 제시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연준, SVB 사태 관련 감독 실패 인정 및 광범위한 은행 관련 규정 변화 필요성 촉구

- 연준은 SVB 감독 및 규제 검토 보고서를 공개. 동 보고서에는 SVB 이사진 및 경영진의 위험 관리 실패, SVB의 취약 정도에 대한 감독당국의 충분한 인지 미비, 감독당국의 빠르고 적절한 대응 지연, 감독의 효율성 저하 등의 내용이 포함
-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은 자산 규모 \$1,000억 이상 은행에 적용하는 스트레스 테스트, 유동성 관리 등의 규제를 개정할 것을 촉구. 또한 자본 계획과 위험 관리가 부적절한 금융기관에 자본 및 유동성을 추가 요구하고, 자부 배액, 배당금 지급, 임원진 보수 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 시사

■ 퍼스트리퍼블릭 은행, FDIC 위탁체제 돌입 및 파산 우려 확대(Reuters)

- Reuters는 소식통을 인용해 FDIC가 긴급하게 퍼스트리퍼블릭 은행 법정관리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. 퍼스트리퍼블릭 은행과 FDIC는 답변을 거부한 가운데 퍼스트리퍼블릭 은행 주가는 동 보도 이후 금일 43% 하락해 주간 75% 이상 급락

■ 일본은행, 초완화 정책 유지 및 향후 정책 검토 실시 예정. 포워드 가이드라인 큰 폭 수정

- 일본은행은 우에다 총재 취임 후 처음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초완화적 통화 정책을 유지하고 향후 1년여간 정책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
- 또한 포워드 가이드라인은 '필요 시 추가 완화 조치를 주저하지 않을 것'이란 문구는 유지했으나, 코로나19('당분간 코로나19 영향 예의주시') 및 금리('장단기 정책금리는 현재 또는 더 낮은 수준 유지 예상') 관련 언급은 삭제
- 우에다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2% 물가 목표를 위한 통화완화 지속 방침을 유지한다고 표명하면서 선부른 긴축 위험이 더 크다고 발언. 또한 정책 검토가 특정 정책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, 검토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정책 변경은 가능하다고 부연

■ 유로존 '23.1분기 경제성장률(예비치), 0.1%로 전분기 대비 소폭 개선

- 유로존(20개국 기준)은 '23.1분기에 전분기 대비 0.1% 성장하면서 작년 4분기 0%에서 반등. 유럽위원회는 '23년 및 '24년 유로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.9%, 1.5%로 제시했으며 인플레이션, 통화긴축, 대외 수요 감소 등에도 금년 경기침체를 모면할 것으로 예상
- 국가별로는 독일이 '22.4분기 -0.4%에서 '23.1분기 0%로 반등하면서 역성장을 모면했으며, 이탈리아(-0.1% → +0.5%), 프랑스(0% → +0.2%), 스페인(+0.4% → +0.5%) 등도 소폭 성장세를 기록

■ 독일 4월 CPI, 전년동월 대비 7.2% 상승하면서 둔화세가 지속. 단 인플레 우려는 잔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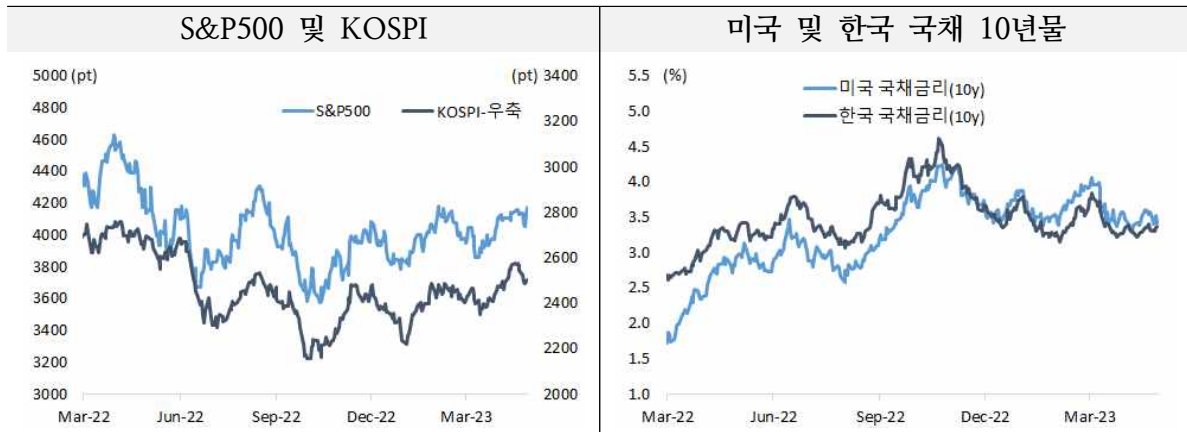
- 독일 4월 CPI 상승률은 전년동월 대비 7.2%로 3월 7.4%에서 소폭 하락. 4월 에너지 가격 상승률은 6.8%로 CPI 상승률을 하회했으나, 독일 통계청은 '22.4월에 라우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이미 높은 수준을 기록한 데 따른 기저효과에 기인한다고 분석
- 통계청은 '23년 및 '24년 인플레 전망치를 5.7%, 2.7%로 제시했으나, 시장에서는 인플레 경로 둔화 불구 우려가 지속. ING는 디스인플레의 상당부분이 기저효과에 의한 것으로 근원 인플레가 여전히 높으며, 임금상승에 따른 고인플레 고착화 가능성을 제시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 이벤트(5/1일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4월 ISM 및 S&P 글로벌 제조업 PMI, 일본 4월 제조업 PMI 등 주요국 경제지표 발표. 한국, 중국, 홍콩, 영국, 독일, 프랑스, 인도, 베트남 등 휴장

금융시장 주요 지표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129, E-mail skkim@kcif.or.kr